

■ 광주시 '2008 노인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원하는 어르신들 모두 오세요”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2008 노인 일자리박람회'가 9월1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노인일자리 박람회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오는 9월 1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구인 업체와 취업 희망노인들을 맺어주는 '2008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광주지방노동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회 광주시연합회가 주관한다. 또 광주 4개구에서 활동중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구시니어클럽, 서구시니어클럽, 북구시니어클럽, 광산시니어클럽이 함께한다.

올해 박람회는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노인창업컨설팅과 함께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1천 200명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08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100여개의 기업체, 5개 자치구,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이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부스를 마련해 상담과 직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참여 기업체들이 현장 면접전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즉시 채용관'도 운영된다.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대필코너가 운영되고 입사 지원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진을 무료촬영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보청기 수선, 수지침 봉사, 무료 법률상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시는 노인들이 취업하는 회사에 대한 적

구인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단체이면 가능하고 참가 직종은 사무직, 노무직, 생산직, 제조업, 서비스직, 파트타임 등 60세 이상 노년층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해당된다. 다만 다단계 판매, 영업직 등

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행사 당일인 9월 18일까지 노인일자리박람회 사무국에 취업 희망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613-3236~37.

광주시 관계자는 “일 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이 취업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가 노인구직자를 위한 이벤트인 만큼 노인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9월 1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서 개최 100개 업체 참가·1200개 일자리 창출

을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관리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채용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 구직자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일할 의사와 신체조건을 갖고 있으면 된다.

노인 부적합 직종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행사에 많은 구인업체와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금남로공원, 광천동시외버스터미널, 광주공원, 중외공원, 쌍안공원 등에서 희망의 메시지 릴레이, 노래봉사단 음악회 등 사전 불조성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9월 12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어르신들에게 민간일자리 개발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에 658명, 2006년에 249명, 2007년에 530명 등 모두 1천437명의 일자리를 마련했

실버라운지



김성훈

건강증은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노화과정일 수 있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나이에 동료들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면 병일 수 있다.

노인성 치매환자나 알츠하이머환자의 경우 어릴 적 기억은 생생해도 10분 전에 먹었던 밥을 언제 먹었는 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있다. 또 건강증환자가 금방 들은 전화번호 등 숫자를 잘못 외우고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 놓고 불끄기를 잊거나, 방과 후 아이를 차에 태워야 하는데 데리러 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모두 위강메모리(단기기억)의 기능약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호화가 안 돼 기억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사람을 소개받은 후, 다시 만나니 얼굴은 알겠는데 누구인지 기억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의를 부산한 상태에서 만난 인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감만 있을 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까지 떠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부 정보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게 되는데 전문용어로 입력된 정보를 '기억 부호화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을 부호화하려면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건강증 잦으면 치매 검사를

일반적으로 치매는 단기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주는 문지기인 해마의 기능장애로 새로운 정보를 잘 입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건강증이 치매로 발전한다는 것으로 모든 건강증이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진단(경도 인지장애)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소수지만 건강증을 호소하는 노인 일부가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스로 기억력 감퇴가 느껴진다면 우선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14로 확인한 새 전화번호로 막 다이얼을 돌려려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면 분명 제대로 정보를 입력할 수 없을 것이다. TV뉴스를 보다 휴대폰이 울려 받았다 하자 아마 뉴스에 정신이 팔려 평소 두는 위치가 아닌 소파 밑에 무심코 휴대폰을 던져둘 수 있다.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행동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두엽, 특히 우측 전두엽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은 베타(beta)파의 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진단이 가능한다. 병적인 건강증이나 치매의 경우 이런 베타파의 증가가 오히려 전두엽 뇌파의 주파수가 세타(theta)파 수준까지 느려지게 된다.

그러므로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베타파를 강화시키고 세타파를 제어하는 뇌파훈련은 건강증과 치매를 예방 또는 호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강증과 치매는 피할 수 없고 한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뇌노화질환으로 생각돼왔으며 진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으나 뇌의 기능상태를 반영해주는 뇌파를 측정하는 첨단 기기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호전율을 알 수 있으며 뉴로피드백을 통한 뇌파훈련으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양신경정신과대학사·김성훈의임장>

노인성황반변성 치료·예방 단백질 발견

미국 유타 대학 연구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인 노인성황반변성을 치료·예방할 수 있는 핵심 단백질이 발견됐다. 미국 유타 대학 존 모란 안(眼)센터 연구팀은 혈관 내부표면에만 존재하는

로보-4(Robo-4) 단백질이 당뇨성망막증과 노인성황반변성의 두 가지 핵심적인 증상인 불안정한 신생혈관 형성과 혈관누출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두 가지 안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킨 쥐들에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킨 결과 망막에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고 혈관이 안정되는 한편 이미 손상된 혈관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당뇨성망막증과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노인성황반변성은 모두 망막 혈관이 손상돼 불안한 새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신생혈관이 누출을 일으켜 실명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안질환이다.

/연협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 로직 공인중개사.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19회시험 10월26일, 원서접수 8월18일~8월27일까지 본학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지방직. 강좌직종: 행정부처원, 경찰공무원, 교보, 보훈, 군도, 토건, 전. 하반기 시험. 개강 9월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회원 모집. 6개월(총)회원 80만명, 1년(총)회원 120만명, 합격시까지 170만명.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송은영님 평균 96.7점] 합격률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개강 9월1일.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전강부 "절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1일, 모집인원: 전역 50명 (송은영님). 강의를: 9월1일~10월17일.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